

다산포럼

우리도 기본소득제를 논의할 때다



유철규 성공회대 경제학 교수

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적 완화 정책이나 마이너스 금리 같은 공격적인 통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학계에서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대해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견해는 저축 성향이 높아지고 투자성향은 낮아지는 데서 오는 총수요 부족 가설이다. 그리고 저축 성향이 높아지는 원인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데서 찾아진다. 소득이 집중되는 고소득층의 저축 성향이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 총수요 부족을 메우는 방법은 금융의 팽창이었다. 그런데 금융자산의 축적은 그 반대편에 반드시 금융부채의 축적을 초래하기 때문에 부채의존형 성장을 의미한다. 소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소비는 가계부채의 누적과 부실화를 초래하고,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투자 확대는 거품을 낳았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이는 기술 발전도 위기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동안 기업 간, 산업 간, 국가 간에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 이용의 발전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로봇 상용화 등을 매개로 급속히 통합되고 있다. 그 결과

생산 능력은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데 이를 사회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은 계속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올 초 열린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주 주제로 채택됨으로써 관련 논의가 급격히 확산되었다. 결국 '시장노동 없이 소득 없다'는 현 경제시스템의 기본 원칙에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결론이다.

이에 주목받고 있는 방안이 기본소득(Basic Income)제이다. 한국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유럽을 필두로 서구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기본소득은 자격 심사나 구직 등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모든 개인에게 자격 조건이나 의무 사항 없이 지급된다.

핀란드에서는 1917년부터 일부 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의 효과와 비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네덜란드의 경우도 지자체 단위에서 올 1월부터 기본소득제의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다. 스위스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도 예외가 아니며, 심지어 미국에서도 1970년대에 이미 기초소득 보장

다른 효과를 살피기 위한 대규모 실험이 수차례 이루어졌다. 알래스카주는 일찍부터 석유자원 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되어 왔으며, 브라질에서도 입법화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었지만, 이번 총선에서 일부 정당들이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고,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가 '기본소득 도입 논의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논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특징을 잘 지적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생산 효율화의 충격이 가장 크게 올 수 있는 경제 구조이면서도 이를 수요 측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은 극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에서 유래하는 영국 고전 경제학의 막내 격인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정치경제학원리'(4판)에서 이전의 모든 정치경제학자가 부의 증가가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음을 깨닫고 두려워하지만, 더 낫은 분배를 이룰 수 있다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인구 증가 둔화와 인공지능이 사회적 재량이 될지 인간 삶의 향상을 이어줄지는 분배에 달려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社說

시의원들 지도부 간담회 꼭 거부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중민 비상대책위원 대표부터 석유자원 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되어 왔으며, 브라질에서도 입법화되어 있다.

실제로 더민주 지도부는 압승을 거둔 수도권이나 비교적 선전한 충청·영남에 앞서 광주를 먼저 찾은 점을 강조했다. 박광은 대변인은 "총선 뒤 지방 일정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광주를 첫 행선지로 택한 것은 그만큼 광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계호 의원 등 비대위원과 정세균 의원 등 당 중진급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립 5·18 묘지를 참배했다. 김 대표는 방명록에 '수권 정당이 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뒤 무거운 표정으로 추모탑에서 묵념과 헌화·분향을 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시·구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하지

만 이날 간담회에는 더민주 소속 광주지사 의회 의원들이 집단 불참했다. 광주 민심을 전해 듣고 지역 민심 회복을 위한 방안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려는 취지였지만 더민주 소속 광주지사의 의원 13명이 간담회를 보이콧한 것이다.

일단 시의원들은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일정에 반기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의원은 "김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사전에 알려지도 않고 모이라 해서 모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불참했다"고 말했다.

물론 이 또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의원들이 다른 이도 아닌 자당 대표가 참석하는 지도부 간담회에 불참한 것은 아무래도 너무한 감이 없지 않다. 특히 해결해야 할 광주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터에 아무리 호남에서 인기가 없는 대표라 할지라도 그럴 수록 참석해서 쓴소리를 단소리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

시민을 북한군으로 왜곡한 지만원 엄벌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을 일삼던 지만원 씨가 또다시 법의 심판대에 섰다. 5월 법원과 관련 이미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지 씨가 이번엔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지 씨는 지난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민주화운동을 벌인 시민군들을 터무니 없이 북한특수군으로 지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하는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뜻을 담은 '광수'로 지칭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뜻밖의 오명을 쓰게 된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은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 씨 등 벌써 4명이 나 된다. 이들은 모두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았는데도 지 씨에 의해 북한군으로 지목됐다며 분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 씨는 지난 2002년 신문에 5·18 왜곡 광고를 실었다가 징역 10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009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당시 북한과 관련 이미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지 씨가 이번엔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지씨가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한 내란음모였다'고 인터넷에 올렸다가 5·18단체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은 당시 '지 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이후 5·18 법원을 부추기는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번 북한특수군 지칭 사안은 명예훼손 피해자가 특정됐고, 그 증거 또한 확실하므로 단호하게 처벌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지 씨를 엄벌함으로써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5·18 비방을 근절토록 해야 할 것이다.

NGO 칼럼

청소년을 내버려두자!



김성훈 광주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인정당하게 접어든다.

성인들은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아이를 보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한다. 이때는 꽃이 더 아름답게 피기 위한 과정처럼 기다려 주는 것이 답이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냉정하게 들여다 볼 시간조차 박탈하고 있다. '미래'와 '희망'이라는 족쇄가 가두어 학교, 학원에 붙잡아 둘 뿐이다.

조금 냉소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사회에 청소년은 없고 단지 '학생' 시간만 있을 뿐이다.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와 성적을 외치고 학교를 마치고도 학원과 집에서 공부와 성적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쉬는 날에는 입시에 방해되는 '○○는 하지마라'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또한, 끊임없이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구당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다. 청소년들이 시들어 가면서 신음하고 있다. 이런 청소년들이 "내 꿈이 무엇인지 몰라요"라고 아무

렇지 않게 말할 때면 가슴이 아프다.

얼마 전 지역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 워크숍을 한 적이 있다.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도시의 최우선 의제로 '한 달에 한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시간을 달라'는 것이 1위로 뽑혔다. 우리는 이날을 '냅 뒤날(day)'라고 부르기로 했다.

문득, 2014년 서울광장에서 한 청년이 기획한 세계 최초 '멍 때리기 대회'가 떠올랐다. 이 대회 우승자는 9살 초등학생이었다. 그 말도 안 되는 대회가 올해는 3년째를 맞는다. 지난해 북경으로 건너가 2회 대회가 개최됐고, 올해는 5월7일 '수원국제멍때리기 대회'가 열린다고 한다. 웃픈(웃기고 슬픈) 일이지만, 우리 젊은 이들의 무기력과 고달픔을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변명이 필요하다면 이런 관심은 어떻게?

2014년 일본 가와사키에 '꿈의 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놀든, 수다를 떨든, 공부하든, 명을 때리든 출석을 인정해 주고 있다고 했다.

일본 연구진은 청소년 무기력이 극도

로 심해지고 등교를 거부하는 원인을 '자존감'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200여차례나 모여 토론했고, 시민단체가 가와사키시에 18세 이하 청소년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는 '꿈의 공원' 조성을 요구했고, 지난 2003년 7월 문을 열었다.

경쟁에 지치고, 힘들고, 학교 가기를 거부하는 어린이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공부도 한다.

불안하더라도 청소년을 내버려 두고, 그들을 믿어보자. 자기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타인은 없다.

"공부해라", "하지마라", "너도 커 보면 안다", "나중에 커서 해라"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자. 시간을 주고 스스로 말하게 하고 춤추게 하자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역할을 맡기고 책임을 나누게 하자. 그들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자. 실험하게 하고 탐을 즐기게 하고 창조하게 하자.

기고

도시문제와 경제성장, 스마트도시로 해결하자



이세규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하지만 만약 도시 곳곳에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과 범죄발생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수도와 전기사용을 신속히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면, 이 같은 문제들은 효율적인 정보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빅 데이터를 분석해 즉각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시스템이 바로 스마트도시다. 스마트도시는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인 교통, 에너지, 의료, 기후, 재해 등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한 마디로 똑똑한 도시를 말한다.

스마트도시는 기반시설들을 하나의 유체처럼 연결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적절히 배분하는 한편, 여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시 네트워크 체계인 것이다. 이 때문에 스마트도시는 다양한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산업형태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최근에는 스마트도시가 국제적으로 거대한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8년 20개 사업에서 2012년 143개로 4년 만에 약 70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또한, 관련 기술시장의 규모도 2011년 약 540조원에서 2016년 1300조원까지 크게 성장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도시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여러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도시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해외사례로, 영국 글래스고시가 2007년부터 첫 번째 스마트도시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도시교통, 범죄, 상거래, 에너지, 환경 분야 등에 약 2400만 파운드(약 430억원)를 스마트도시 건설에 투자하고 있다.

일본은 2010년부터 마을단위에서 차세대 에너지·사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요코하마, 도요다, 기타큐슈 등의 지자체에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의 도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약

5000억 위안(약 88조원)을 투자해 스마트도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미래도시 모델로서 스마트도시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우선, 중장기적인 스마트도시의 계획과 집행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국내에 적합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행정·재정적 투자가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스마트도시는 보안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스마트도시는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기반시설과 개인단말기를 연결한 하나의 운영시스템이다. 그러므로 만약 신종 사이버범죄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면, 오히려 심각한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문제와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스마트 도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활용이 필요할 때이다.

無等鼓

인간의 본능 중 하나는 '날고 싶다'는 것이다. 인간은 비록 몸통에 날개를 갖지 못했지만 과학을 이용해 끝내 비행에 성공했다. 그리고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날고자 하는 무한 경쟁이 시작됐다. 갖가지 아이디어들이 쏟아지며 비행기의 수준은 북극기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제트기로 나 날이 향상됐다.

비행기의 비약적인 발전은 이끈 것은 유감스럽게도 전쟁이었다. 당연히 비행기에 상대를 격추시키거나 죽이기 위한 무기가 탑재됐다. 속도와 기동성, 무장능력이 적보다 월등해야 했다.

일본 해군 미쓰비시(三菱) A6M 영식 함상 전투기(제로 전투기)가 첫 등장했을 때 연합군 측은 당황했다. 이 전투기의 성능이 연합군 측 어떤 전투기보다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일본 해군 항공모함용 함재 전투기로 만들어져 기동력이 우수하고, 항속 거리가 길었다.

하지만 차츰 전투를 치르며 '제로 전투기'의 치명적인 결점이 노출됐다. 엔진의 약한 추진력을 보완하기 위해 조종석과 엔진실, 연료 탱크에 대한 방탄 처리를 생각해 버린 것이었다. 그야말

로 조종사들의 생명은 전쟁을 위한 '소모품'으로 경시됐다. 결국 전쟁 말기 전 세계 기술자 일본 수뇌부는 조종사들에게 '제로 전투기'에 대해 폭탄을 때 달고 가마기에 공격에 나서도록 했다.

태평양전쟁 시기 64기의 연합군 전투기를 격추해 일본 최고의 에이스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카이 사부로(坂井三郎·1916~2000)는 회고록 '대공의 사무라이'에서 이런 말을 했다. "...만약 일본이 다시 저를 원한다면, 전쟁이 일어나 다시 비행을 시킨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제가 다시 하늘을 날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개발 중인 스텔스기가 최근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이로써 일본은 미국과 러시아·중국에 이어 스텔스기의 개발에 성공한 네 번째 국가가 됐다. 공교롭게도 개발사는 '제로 전투기'를 설계한 미쓰비시 중공업이다. 이번 일본의 스텔스기 개발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는 일본의 모습과 오버랩될 불안감을 자아낸다. 지난 전쟁에 역사의 교훈이 담겨 있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일본 스텔스기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details.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 팩스 062-222-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